

전주시, 경기전 상설 프로그램 '풍성' 전주시 점자 문화 확산 '앞장'

11월까지 수문장 교대의식·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왕과의 산책 등 진행

주말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일대에서 수문장 교대의식과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 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 등 다양한 경기전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문장 교대의식의 경우 6월과 9월,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전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문장 교대의식은 수문군 순라행렬이 어진길과 은행로, 태조로를 거쳐 경기전까지 이어지며, 같은 시간 경기전 정문에서는 국악 공연이 시작된다. 곧이어 경기전 정문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수문장 교대의식이 재현되고, 순라행렬로 마무리된다.

또한 전주한지·기록문화·전주사고



주말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경기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교육·해설 프로그램인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은 6월 넷째 주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1일 2회)에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주한지의 아름다움과 기록문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를 연극 형식으로 배울 수 있다. 끝으로 '왕과의 산책'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며, 금요일은 힐링편, 토요일은 탐방편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 가운데 '힐링편'은 치유의 명상, 다과와 이야기, 음악 낭독극으로 구성돼 전주의 밤 풍경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탐방편'은 경기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연극을 활용한 문화유산 해설을 들으며 경기전을 탐방할 수 있다.

왕과의 산책은 네이버(booking.naver.com)에서 예약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전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 지인들과 함께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박혜숙 의원(송천2동·사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 △공공건축물 및 시설 내 점자 환경 개선 △점자 자료의 제작·보급 지원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주시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익빈)는 23일 지역 자생단체 임원 및 동 주민센터 직원 등과 함께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온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특별히 키링 형태의 호투라기를 제작·배부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호투라기에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문구를 새겨, 학생들이 평소에도 그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학생들은 키링을 가방이나 필통 등



매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온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특별히 키링 형태의 호투라기를 제작·배부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에 달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조익빈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없는 중화산2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청소년단, 전주 문화 만끽

LA 한인회 청소년 대표단 17명, 전통문화 체험 등 진행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찾아 고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운다.

전주시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청소년대표단 17명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해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며 고국의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지난해 1월 체결한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LA 청소년들이 전주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향상시키고 양국 청소년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고국을 찾은 한인 청소년들의 첫날인 지난 22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조선왕조와 전주시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통문화 연수원인 동현에 방문해 한국의 예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주시 대표 도서관인 꽃심도서관을 방문해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누리고 체험했다.

특히 시는 이날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을 전주시와 미국, 해외동포들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주시 해외지부관으로 위촉했다.

한인 청소년들은 24일에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를 찾아 한국화, 그리기 체험과 궁중음식 조리체험, 판소리공연 등 전통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경기장을 찾아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하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청소년대표단 17명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전주를 방문해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며 고국의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드론축구를 직접 체험하고,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우방기 전주시장은 "지나해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청소년 교류를 통해 양국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류로 국제적 안목을 함께 키워나가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멋도 한인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혀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LA한인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폭염·폭우 대비 응급의료체계·의료기관 사전점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고 23일 밝혔다. 보건소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지역 내 응급실 6곳과 협력해 전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신속히 보고·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

기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올 여름 폭염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폭우로 인한 의료 공백 예방을 위해 전주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는 최근 3년간의 침수 이력과 상습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산지 인접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 실시하는 등 호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권희성 기자

삼천3동 주민자치위, 어르신 가정 집수리 봉사 펼쳐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시점명)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낡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대문 페인트를 도색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 시점명 위원장은 "이번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삼천3동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천3동 김주관 동장은 "바쁜 와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낡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대문 페인트를 도색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늘 함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한 복지가 살아있는 삼천3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기탁, 노린지팡이 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과

관공각

내아